

Essay on Veterinary History VII

(로마시대의 수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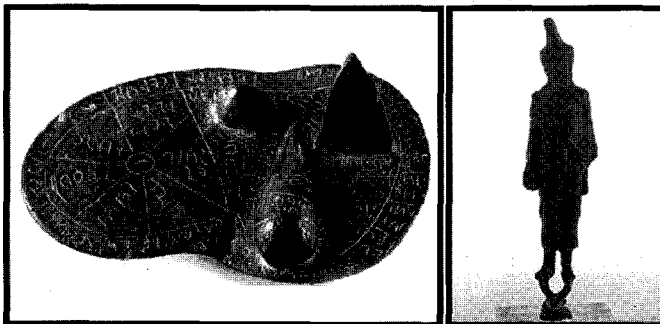
(주)동아시아인스 연구원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리는 로마의 역사는 생생하고 재미있다. 고작 카이사르가 몇 년도에 죽었고, 폭군 네로는 로마를 태웠고, 로마군이 지중해 일대를 장악했다던가, 이름을 외기도 힘든 황제와 장군들이 그들이 활동한 기간의 숫자로만 인식되던 로마사가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제는 스테디셀러가 된 이 대중서적 때문에 로마의 수의학을 이야기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것 같다. 로마의 군 조직 속에서, 로마의 법 속에서, 로마의 유명한 학자들과 관련하여 로마 시대의 수의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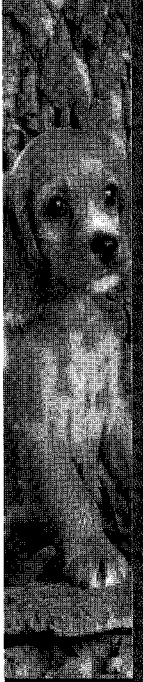
내장 관찰자, Haruspex

고대 로마 사람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자리 잡기 이전 에트루리아인이 먼저 그들의 세력을 뻗었다. 이들의 종교나 건축 문화가 로마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잠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종교의식의 제물로 희생된 동물의 내장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풍습이 있었다(Haruspicy, 그림1).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사장들이 소나 염소의 간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쳤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들과 문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에트루리아인의 문화는 메소포타미아 문화로부터 영향



(좌-<http://www.utexas.edu/courses/cc302k/Rome/02.etruscans.htm>)
(우-Vatican Museum)
그림 1. 동물의 간 모형과 제사장 Haruspex



을 받았다고 한다. 일단 희생된 제사동물은 해체되고 제사장인 'Haruspex'가, 그 내장을 관찰했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로마의 동물들과 수의사

고대 로마인들은 동물과 연관이 깊다. 우선 로마건국 신화 속의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는 버려진 채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로마 문화의 상징물인 콜로세움에서는 야수와 검투사들이 결투를 벌였으며 말이 끄는 전차 경기가 개최되었고, 로마의 팽창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코끼리 같이 이국적인 동물들이 수입되었다. 로마인들은 애완동물로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물고기, 새들의 애호가이기도 해서, 심한 경우 새 한 마리가 노예보다도 고가로 거래되었고 아끼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장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예술품으로 그 동물의 생전의 모습을 남기기도 했다(그림 2).

그렇다면 이 소중한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의사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것은 아닐까? 불행히도 소동물 수의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 다만,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그림 3)가 선포한 '최고 가격령'에 말을 치료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도 그 치료단가의

상향선을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수의사의 활동에 대해 어렵잖이나마 그려볼 수 있을 뿐이다. 최고가격령에 따르면 갈기 자르기와 말굽관리보다는 방혈법 등의 학지식을 요하는 경우 치료단가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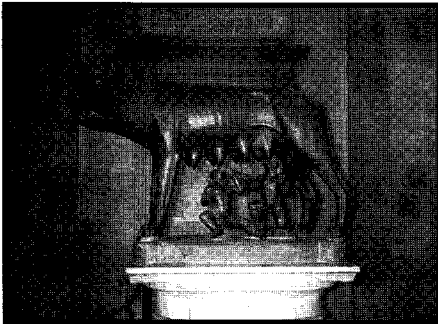


그림 2. 로마의 시조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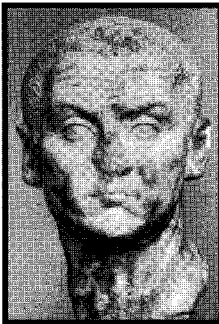


그림 3.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수의사(Veterinarian)의 기원

로마시대에 씌여진 가장 중요한 농서 중 하나인 'De re rustica (농업에 대하여)'에서 수의사를 나타내는 '베테리나리우스(veterinarius)'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수송용 가축을 뜻하는 '베테리나(veterina)'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 단어가 바로 'veterinary'의 기원이다. 로마인들의 무덤에 새겨진 직업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mulomedicina(당나귀 의사)', 'mediicus iumentarius(가축의사)', 'medicus pecuarius(가축 의사)', 'medicus equus(말 의사)' 들도 있는데, 수의사를 나타내는 특수한 단어가 존재했다기 보다는 동물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불리웠거나, 수의사에게도 각각 특수하게 전담하는 분야가 있었던 것 같다.

베테리나리움(Veterinarium) 로마군 기지의 군마진료시설



그림 4. 말의 여신 에포나

말은 로마에서도 역시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제국을 넓히고 유지하는 것이 주임무인 군대에서 이 소중한 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데 노력을 쏟았을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들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에포나(Epona) 숭배이다. 에포나는 켈트 족의 문화에서 비롯된 여신으로 예술품에서도 항상 말과 함께 표현된다(그림 4). 로마군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말의 수호여신인 에포나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다.

한편, 로마의 말은 현재의 말보다 약간 작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엄격한 훈련을 받았으며, 머리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발에는 ‘히포산달(hipposandal, soleae ferreas)’ 신었다. 이 히포산달은 일종의 편자로 수송용 동물에서 주로 쓰였다(그림 5).



(Von den Driesch and Peters)
그림 5. 히포산달 (Hipposandal)

시오노 나나미가 자세히 묘사한 것을 참고로 하면, 로마군은 상당한 실력을 갖춘 공병대를 보유 했고 이들이 군 기지를 작은 도시만큼 훌륭하게 건설했다. 이런 군 기지 안에 말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 베테리나리움(Veterinarium)이 있었다. 다친 군인들을 치료했던 시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은 면적이 약 625m² 되는 입원실과 160m² 정도의 처치실을 갖추고 있어, 대략 60마리 정도의 말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어, 정확히 어떤 공간이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단순히 마구간이나 말 훈련시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크기와 위치 및 명칭을 볼 때 ‘말병원’으로 보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림 6)

로마의 수의학 서적

고대 로마의 농서들 중에는 수의학 지식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종종 있다. 목축과 농장경영에 필요한 수의학 자료들을 모아 놓은 이 책들의 저자는 유명한 학자이거나 혹은 직접 농장을 경영한 농부이기도 했다. 이들 서적 중 중요한 몇 종을 살펴보기로 하자.

¹ Castrum Novaesium 발굴 보고서 및 사이트 참조 (<http://www.castrum-novaesium.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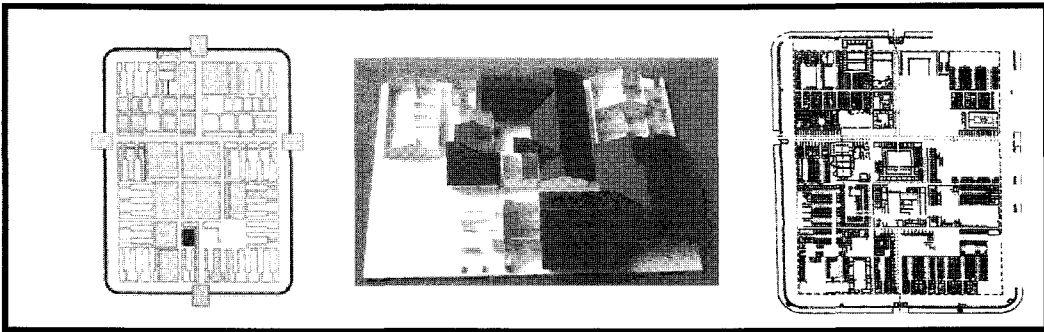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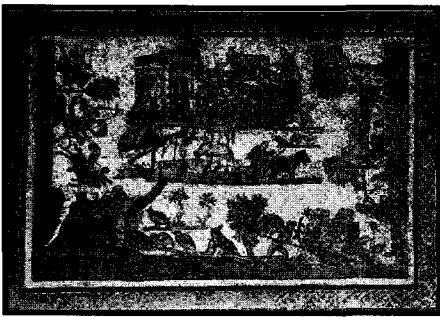


그림 6. Veterinarium (Castrum Novaesium)
*출처 (<http://www.castrum-novaesium.de>)

카르타고 사람 마고(Mago, 550 500 B.C.)가 썼다는 28권의 농서는 말과 소의 거세법이나 질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전해지지는 않고 후대의 책들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한편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농서인 카토(Marcus Porcius Cato, 234 149 B.C.)의 '농업에 대하여(De agricultura)'는 수의학에 대해 많은 지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약초를 이용한 몇몇의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에서 벼룩이나 이 등 외부 기생충은 올리브 오일로 된 연고를 바르고 소금물로 씻어내라고 당부한다. 하지만, '만약 소가 일하던 중 병을 얻으면 즉시 날 달걀을 삼키게 하라.'라는 약간 엉뚱한 응급치료법들도 논하고 있어, 지은이가 임상경험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의학 지식이 아니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Von den Driesch and Peters)
그림 7. 로마의 농장

로마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으로 꼽히는 바로 (Marcus Terentius Varro, 116 27 B.C.)는 총 세 권으로 된 '농업에 대하여(Res Rusticae)'를 통해 가축 사육과 질병에 관해 설명했다. 바로는 가축 질병의 원인으로 과도한 열과 냉, 과도한 노동, 운동부족, 부적절한 식이를 지적했다. 전염병에 대한 언급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바람과 함께 옮겨 전염시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후대에 나온 어떤 다른 전염병에 대한 이론 보다는도 과학적이다.

또한, 실제 성공을 거둔 농장주였던 콜루멜라(L. Junius Moderarus Columella, ? ?)가 쓴 '농업에 대하여 (De re rustica)' 역시 중세 시대까지 가장 중요한 수의학 서적 중 하나였다. 총 12권 중 6 9권이 축산과 수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중요한 점은 작가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매우 명료한 표현으로 가축의 질병을 설명하고 허브나 동물 지방, 술



등 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재료들을 이용한 재료를 제시했다. 또한 축사 위생을 강조하여 질병의 예방책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수술적인 치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이 콜루멜라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다(그림 7).

동로마 시대의 수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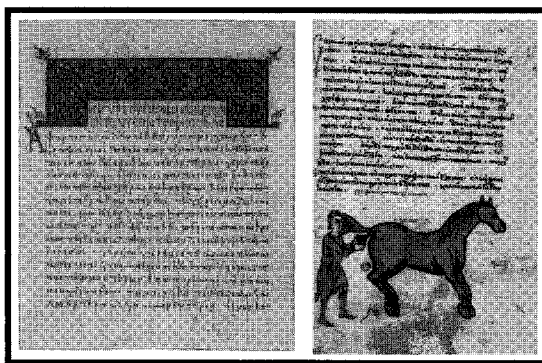
330년 두 개로 갈라진 로마제국에서 서로마 제국은 곧 몰락의 길을 가지만, 15세기까지 독특한 문화를 이끌어간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은 중세시대에 무시되었던 고대 그리스 문화를 르네상스 유럽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수의학 지식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표적인 결과물인 코르푸스 히피아트리쿰 그레코룸(Corpus Hippiatricum Graecorum, 이하 CHG)은 4~5세기 경 그리스 로마시대의 수의학 지식을 총 집합 한 것으로 9~10세기경 동로마인들을 통해 편찬되었다. '머리에서 발'의 순서로 말의 질병을 매우 체계적으로 편집한 이 책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명망 있는 수의사들의 이름을 모두 담고 있다. 이 수의사들이 질문에 답하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이들의 권위를 빌려오려고 의도한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말을 찾지 말라. 오히려 경험을 통해 얻은 자연과학적 지식에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말하는 압지르토스(Apsyrτος)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전쟁을 수행한 수의사로 제염염이나 류마티즘에 대해 설명했다. 그 이외에도 그와 동시대인인 테오메스토스(Theomestos), 약간 후대인인 히에로클레스(Hierocles) 등 많은 수의사가 등장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은 '머리에서 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10장까지 일반론적인 내용을 다루며 11장의 눈, 귀, 목, 코의 질병을 시작으로 목과 어깨부위, 소화기계와 비뇨기계, 사지와 꼬리 순으로 진행된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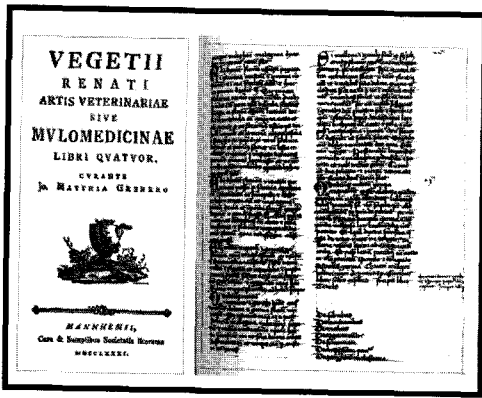
또 한편의 수의학 서적은 물로메니시나 키로니스(Mulomedicina Chironis)로 전설 속 반인반마이며 의술의 대가이기도 했던 카이론(Chiron)의 이름을 따다. 작자가 미상인 이 책 역시 압지르토스

(Apsyrτος)를 수의학의 대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시대 인이 저술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CHG에 비해 체계 없이 구성되어 있지만 매우 자세하게 환축을 관찰하고 그 증상을 묘사하여 질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그림 9).

농업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했던 고대 로마 수의학은 수의학 지식은 주로 구전 되었으며 이 구전되었던 내용들이 농업저술가에 의해 서적으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또, 그



(Von den Driesch and Peters)
그림 8. 중세 유럽의 Corpus Hippiatricum Graecorum 재간본들



(Von den Driesch and Peters)

그림 9. 후대의 Mulomedicina Chironis 재간본들

관심 대상으로는 농업용 동물인 소, 양을 비롯한 가축과 군사용으로 중요한 말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록 수의사의 직업적 훈련이나 경험의 기록이 미미할 지라도, 또한 가끔은 수술에 기대고 있는 하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의학으로 발전해 나가는 초석을 마련한 것은 시대의 수의학이 갖는 의미이다. **대V수**

